

■ 편집자의 글 ■

Homo Migrans는 특집 <68운동과 타자성의 전화: 새로운 시민성을 향하여>를 통해 변화하는 시민성의 의미를 68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68운동은 새로운 시대담론이 형성되는 전환점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특히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포함과 배제의 논리가 다시 정립되어야 했던 시기이며, 구좌파와 신좌파의 구분은 정치를 대하는 시민의 태도와 시민을 대하는 정치의 관점을 아래로부터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종일은 논문 「이주와 시민성의 변화」에서 이주유형의 변화가 시민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관계를 일반론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논의한다. 특히 기존의 동화주의 시민성 개념부터 다문화 시민성과 트랜스내셔널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1968년이 다문화 시민성 담론이 형성되는 변곡점이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민진은 좀 더 구체적으로 「68운동 이후 알제리 이주민과 프랑스 언론: 르몽드지의 알제리 이주민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에서 68운동 이후 알제리 이주민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변화는 어떠한지를 르몽드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혁준은 「68운동 이후 대안적 시민성의 철학적 성립기반으로서 보편적 권리화」를 통해 68운동 이후 대안적 시민성이 함의한 보편적 권리의 철학적 기반을 설명한다. Homo Migrans가 소개하는 일반 논문은 두 편은 인종주의의 역사성을 탐구하고 있다. 김민희는 「20세기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 고찰: 악시옹 프랑세즈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에서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악시옹 프랑세즈의 흔적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고찰한다. 그것은 프랑스판 파시즘의 뿌리였다. 하영준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연구」에서 세제르와 제임스의 유명한 희곡작품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과 <블랙자코뱅>을 비교한다. 두 작품의 비교분석을 통해 근대성과 탈식민화에 대한 흑인 급진주의 사상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에 내재하는 이론적 정치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